

불구덩이 뛰어든 모성

광양 아파트 화재...6층서 실외기·배관 타고 5층 내려가 자녀 3명 구조
SNS “모성에 위대함” 잇단 응원...소방당국 “위험했지만 무사해서 다행”

모성(母性)은 강했다. 자녀들을 구해야 한다는 엄마의 마음은 뜨거운 화염도, 20m 가까운 높이의 아파트 벽을 타고 내려가는 두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40대 어머니가 아파트 5~6층 높이 베란다를 타고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가 자녀들을 구했다.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5시 20분께 광양시 금호동의 한 아파트 5층 거실에서 불이 났다.

당시 외출 중이었던 집주인 40대 A씨는 화재 소식을 듣자마자 집으로 달려왔다. A씨 자녀는 총 4명이며, 함께 외출했던 1명을 제외하고 3명의 10대 미만 자녀가 집 안에 남아 있던 상황이었다.

A씨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연기로 진입이 불가능해지자, 위층인 6층 이웃 세대로 올라갔다.

이후 A씨는 6층 베란다로 나왔다. 적절한 높이였지만, A씨는 침착하게 베란다 난간을 넘어 실외기와 그 배관을 붙잡고 아래 층으로 몸을 옮겼

다. 베란다 난간 외에 A씨가 손으로 잡을 건 전혀 없었다. A씨는 베란다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을 주고 자신의 집인 5층 베란다 실외기로 다리를 길게 뻗었다.

발이 간신히 닿자, 천천히 무게 중심을 옮기며 실외기로 내려갔다. 그리고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으로 뛰쳐들어갔다. 집 안에서 베란다 쪽에 붙어 엄마를 기다리던 아이들은 곧 엄마의 품에 안겨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A씨가 집 안으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신고 접수 후 5분만에 도착한 소방당국이 사다리차

를 베란다 쪽으로 늘어뜨려 A씨와 자녀들은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다.

A씨와 자녀들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고 모두 퇴원했다.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집 내부는 전소됐다. 이 가족은 현재 자신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어린 아이들이 거실에 있던 전열기구를 넘어뜨리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파트 관계자는 “A씨가 베란다에서 실외기

배관을 잡고 내려가는 모습을 봤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등 SNS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불길로 뛰어드는 모습에서 모성의 위대함을 느꼈다”는 감동과 응원이 반응이 주를 이뤘다.

한 스레드 이용자는 “간박한 순간에 아이들만 생각했을 마음을 떠올리니 코끝이 찡해진다”며 “엄마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와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낀다. 가족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남겼다.

인스타그램과 X(옛 트위터) 등에서도 ‘떨어지는 고동보다 아이들을 잃을까 더 무서웠으니 저 선택을 했을 것이다. 모두 무사해서 천만다행이다’, ‘어머니는 위대하다’,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엄마이기에 가능했던 것’, ‘간절했을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 ‘모성에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 ‘자신의 목숨보다 아이들을 먼저 생각한 것’ 등의 내용이 담긴 댓글이 줄을 이었다.

다만 소방당국 관계자는 화재로 인해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는 행동인 만큼, 무리하게 화재 현장으로 뛰어드는 행위를 자제해 주기를 당부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긴급한 상황에서 자녀들을 위해 필사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했던 행동으로 보인다”며 “운동신경이 있다면 가능한 일일 수도 있지만, 너무 위험한 행동이라 자칫 잘못하면 모두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공공 언 도심 한 시민이 영화권 추위에 눈까지 내린 21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거리를 걷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무안·영광 등 대설주의보

광주·전남 지역에 22일까지 전남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2일까지 전남서해안에 2~7cm, 많은 곳에는 10cm 이상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광주·전남중부내륙, 서부 남해안 지역에는 22일 1~5cm, 23일에는 1~3cm의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21일 오전 11시를 기해 장성·영암·무안·함평·영광·목포·신안·진도 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전남서부 일부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22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남서해안에는 시간당 1~3cm 눈이 강하게 집중돼 대설특보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었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보다 2도 안팎으로 더 떨어져 영하11도~영하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1~2도에 분포하겠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7~1도, 낮 최고기온은 4~7도가 예상된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대학들 등록금심의위 준수율”

교육부, 규정 위반 사례 지적...2026학년도 인상 심사 점검

새 학기를 앞두고 다수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21일 전국 대학에 ‘등록금심의위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대학마다 설치된 등록금 심의위는 등록금 결정을 위한 법정 기구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최근 일부 대학의 등록금심의위 운영 과정에서 사전 통보 기일 미준수, 회의 자료 부실 제공,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 회피,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 등의 문제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각 대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금심의위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등록금심의위의 실질적·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등록금심의위가 실질적 기능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 상황 등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각 대학은 교육부가 매년 정하는 인상 상한율을 토대로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을 결정한다.

올해(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율은 3.19%로, 작전 3개 연도(2023~2025)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에 해당한다. 지난해까지는 1.5배였으나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낮춰졌다.

/연합뉴스

신용동 ‘청소년 패거리’ 어른 못지않은 ‘강도짓’

광주지법, 10대 3명 첫 재판...강도 상해·특수강도 등 19건

광주시 북구 신용동 일대 등지에서 ‘청소년 패거리’가 강도 행각을 벌이며 횡포를 부린다는 사건(광주일보 12월 2일자 7면 등)과 관련, 재판에 넘겨진 패거리 청소년들이 수십여건의 강도·공갈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1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군은 지난해 11월 22일 밤 10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신용동 일대에서 또래 중학생을 폭행해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시가 12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군, C군은 A군과 공모해 강도 행각, 차탈이, 무면허 운전 등을 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A군 등은 최근 5개월 사이 총 19건의 강도 행각과 차량 절취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각 강도상해 2건, 특수강도 1건, 절도·공동공갈 16건 등이다.

지난해 8월 28일에는 19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쳐 타고, 9월 18일에는 문이 열려 있던 BMW 승용차에 무단 침입해 시동을 걸고 3일 동안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9월 19일에는 주차돼 있던 벤츠 승용차의 문을 열고 1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또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강도행각을 벌여 103만 원 상당을 뜯고, 11월 19일부터 28일까지는 3회에 걸쳐 강도 행각을 해 86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상황이 이렇데도 경찰은 순찰과 기존부터 반복적으로 하던 범죄예방교실 프로그램만 반복할

뿐, 뾰족한 청소년 강력범죄 대응책을 마련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북부경찰청은 A군 사건 이후 광역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 치안 대책을 수립했다고 하나, 내용은 경찰 순찰을 늘리고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강화했다는 수준에 그쳤다. ‘청소년 패거리’가 활보한다는 신용동 일대를 우범지역·여성 안심 귀갓길 등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방학 기간 중 학교와 청소년들이 많은 일국, 문흥, 신용동 일대에 기동순찰대를 주야간 배치해서 순찰할 계획이다”며 “CPTED(셉테드·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사업도 준비 중이며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지만 예산이 없어 추진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A군 등이 강력 범죄를 잇따라 저지르고 있음에도 학교측에서 교화 내지는 통제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A군 등이 모두 말쑥히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A군의 경우 과거 학폭8호(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연중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나 학교 수업 시수를 채우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을 뿐 강력범죄에 대한 교육이나 제재를 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이 다니는 학교 측 관계자는 “학교에 거의 나오지 않아 수업 일수가 부족한 학생이었다. 학교에 나와 수업 일수를 채우고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학생과 부모를 독려했지만, 적응을 하지 못했다”며 “해당 학생이 수사를 받고 있어 아직 학교 전담조사관의 조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은 정기적으로 운영했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탁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